

2011. 11 / 12 | 격월로 발행되는 온라인 매거진

COVER STORY

온송이 에스테티션

나는 에스테티션이다

HOT CLINIC



내 피부 혁명을 위해 버려야 할 몇가지
차앤박피부과의
피부를 위한 연말 총정리

PAGE : 02

편인터뷰



나는 에스테티션이다
차앤박피부와
압구정점 온송이 에스테티션

PAGE : 06

쭈민



차앤박피부와 핑촌점
피부 유비무환 시대,
피부관리 바이블 대공개

PAGE : 08

포스트잇



리얼 생생 꿈꿨던 남자의 DRT진피재생술 체험기
10분만 읽어보면
DRT진피재생술을 마스터할 수 있다

PAGE : 11

Dr. 지식인



피부 보호하면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부천점
류영식 피부과전문의

PAGE : 13

CNP NOW



차앤박피부와 하반기 관리자 워크샵
2011 차앤박피부와
조직문화 강화 프로젝트 현장 속으로

PAGE : 14

차안박피부과의 피부를 위한 연말 총정리 내 피부 혁명을 위해 버려야 할 몇가지

“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열 손가락으로도 모자랄 많은 이유들을 골뎌며 피부과 가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피부과전문의를 찾기 보다는 동네 뷰티샵이나 고가의 화장품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피부과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고가의 화장품을 쓰더라도 피부 상태를 잘 알고 제품을 고르는 것과 그냥 고르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또한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때만 방문하는 곳이 피부과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좀더 개선된 상황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만들기가 바로 피부과인 것이다.** 이 름하여 내 피부혁명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피부과를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차안박피부과가 모든이들은 위한 피부를 위한 연말 총정리다. 이름하여 내 피부혁명을 위해 버려야 할 몇가지를 공개하고 한단계 나아지는 피부 혁명을 이어가길 바라는 의미에서다. 내 피부를 위한 송구 영신을 시작한다. ”

피부과에서는 다 된다? 현실 속의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피부과 치료의 발전은 경이롭기 까지 하다. 하지만 그만큼 피부질환도 더욱 악화되고,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 또한 아무리 피부과학이 발전을 하더라도 하루 아침에 훼손된 피부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기 힘들다. 피부에게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 피부가 재생되고 제 자리를 찾아가 피부의 본연의 톤과 결을 살려내기까지 그렇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부혁명을 위해서는 피부과의 도움과 개인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실 속의 도깨비 방망이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뭐든지 효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야 하는 현대사회의 특징때문인지 전문가를 찾을때면 도깨비 방망이의 ‘뚝딱’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자신의 피부혁명에 조바심만 가져올 뿐이다. 피부에게 시간을 주자. 재생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리고 기억하자 피부는 신경 쓰는 만큼 아름다워진다. 그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피부치료 울트라3총사, 3개월 후 그들에게 일어날 일!

● DRT진피재생술 피부 흉터, 3개월이면 사라진다.

차안박 독자치료로 불치에 가까웠던 여드름흉터 치료의 가장 진화된 레 이저치료다. 진피층에 수천개의 미세한 열치료 존을 만들어 진피내에서 스스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회복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재생기간이 단 축된다. 미세한 열치료 기둥은 피부표면에서 보면 작고 붉은 시술 자국을 남기지만 7일 이후에는 빠른 재생으로 시술 자국이 거의 사라진다. 한 달 후에는 활발한 진피 재생으로 붉은 증상의 없어짐과 동시에 피부 개 선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울쎄라리프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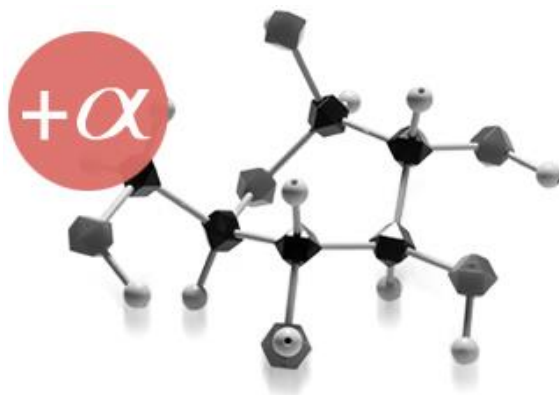
3개월 후 달라진 당신의 페이스라인을 상상하라.

울쎄라는 고강도 초음파를 통해 표피에서 3mm와 4.5mm 깊이의 결합조직에 일정한 간격으로 열 응고 부위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응고된 조직은 수축현상이 뒤따라오는 동시에 1~3개월에 걸쳐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재생되면서 주름과 처진 피부가 개선되는 리프팅 효과를 얻게 된다. 일반적인 콜라겐 재생이 30~90일 정도 걸리므로, 울쎄라 초음파 리프팅 또한 시술 즉시의 효과보다 시술 90일 이후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다. 피부노화가 진행되는 20대 후반 에서부터 주름이 깊어지는 40~50대 에게 효과적이며 성형수술과 달리 절개 없이 20분 정도의 시술로 마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개념 비수술적 안면주름성형술이라 할 수 있다.

• 인트라셀

모공 탄력 고민은 3개월 후 남의 일이 된다

콜라겐 변성 및 생성의 극대화를 돕는 것으로 피부를 빈틈없이 채워 주름을 개선하고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탁월하다. 그 원리는 인트라셀의 미세바늘이 피부에 들어간 후에 피부 진피층부위에 순간적으로 고주파(Radiofrequency, RF)를 직접 방사함으로써 노화되고 손상된 콜라겐을 파괴하고 새로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인트라셀의 장점은 표피 화상이나 통증의 우려가 적고, 시술시 사용하는 미세 바늘의 깊이와 배열이 일정하여 핀포인트 RF 에너지의 세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피부과 전문의가 환자 주름의 깊이나 모공의 정도에 따라 원하는 깊이에 따라 미세 바늘을 조절하여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다.



피부잠재력을 키워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물론 얼굴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체 중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다. 외모만이 중요하지 않다며 인성과 실속,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에 더욱 가치를 두는 전통적인 미덕 등 '피부'의 중요성만큼이나 그것을 깎아 내리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피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순위로 자꾸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는 푸념 속에 더욱 외면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외모 경제학은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활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피부 잠재력을 키워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브랜드를 찾게 된다. 2012년 경기가 밝지 않은 가운데 피부 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피부 잠재력을 키우자. 외모경쟁력이 2012년 당신을 밝게 도와줄 것이다. 내 피부를 위한 송구영신을 위한 차앤박피부과의 조언이다.

피부가 우선이다!! 피부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세가지

• 염증성여드름이 웬말! 스피쿨링-A로 박멸

스피쿨링-A 치료는 길고 가는 모양의 천연 스피쿨이 피부의 진피층 상부까지 침투하여 스피쿨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활성 물질이 피부 속에서 72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항염, 피지조절, 진정 작용을 하여 근본적으로 여드름의 원인을 제거하고 72시간 후에는 각질과 함께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원리다.

여드름 치료나 스케일링으로도 잡히지 않는 염증성 여드름에 효과적이며 빠른 시일 내에 여드름과 피부톤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무엇보다 검증된 스피쿨 효과에 차앤박피부과의 고객들이 경험한 메디컬 프로그램을 도입한 신개념의 여드름 치료 프로그램으로 여드름브레이크를 선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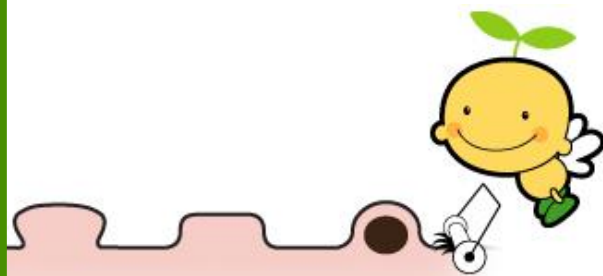


● 기미로 그늘진 우중충한 피부는 가라! 매일매일 환하고 밝게

진피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멜라닌 색소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멜라닌을 자극하지 않아 더 검어지는 부작용이 줄었으며 열 손상 없이 멜라닌 색소를 선택적으로 파괴한다. 기미 레이저는 기미나 색소침착뿐 아니라 잔주름이나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하고 모공 축소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 보통 3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 악성기미가 있던 피부도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될 수 있다. 시술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되며 얇은 기미의 경우 3~4회 시술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기미는 쉽게 재발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보통 1~2주 간격으로 10회 정도 시술하면 좋다.

● 내 피부 포인트는 필요없다. 피부 무풍지대 선언!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알려진 점을 빼는 시술. 대수롭지 않게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점을 빼는 시술은 치료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흠집 없고 매끄러운 피부를 위해 치명적인 이러한 피부 불청객은 점 말고도 편평사마귀, 한관종, 쥐짐, 비립종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아주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점을 빼는 시술의 경우 어븀야그레이저를 사용한다. 피부에 두껍거나 튀어나온 병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레이저시술법으로 깎아내어 경계부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피부를 5~10um씩 한번에 아주 얇게 깎아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조절이 가능한 정교한 시술이다. 콜라겐을 촉진시켜 피부생성에도 도움을 주어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준다.



나는 에스테티션이다 차앤박피부와 압구정점 온송이 에스테티션



나는 에스테티션이다.
고객들의 민낯을 마주하고
지치고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치유와 진정의 케어를 시작한다.
두 손으로 마주하는 고객은 TV속에서 만나는 대스타인 경우도 있고
이름만 대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유명인사도 있다.
가끔은 평소의 팬이었던 배우도 있다.
그러나 다시한번 되새긴다.
나는 에스테티션이다.
그들의 피부고민을 최소화하고, 진정으로 피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래서 오늘도 난 오직 피부에만 집중하며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길, 개
선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에 임한다.
나는 차앤박피부과의 에스테티션이기 때문이다.

압구정점에서도 셀러브리티들의 관리를 거의 전담으로 맡고 있다는 온송이 에스테티션을 인터뷰하러 방문했을 때 그녀는 막 고객의 관리를 끝내고 나오
던 참이었다. 인터뷰 주인공이지만 이제 막 땀을 닦고 자리에 임하는 모습이 소탈하여 인상적이었다. 아름답게 보이고만 싶은 20대 초중반의 나이인데 그런
모습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긍지가 더욱 느껴졌다.

“셀러브리티들도 많지만 대부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세요. 또한 전담으로 맡게 되는 경우는 고객들 중 ‘손 타는 것’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꼭 셀
러브리티들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손이 바뀌는 걸 꺼려하시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객님의 원하는 대로 맞춰 드리는 편입니다. 케어와 동시에 피부에
휴식을 주려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온송이 에스테티션은 겸손하게 이야기 하지만 압구정을 방문하는 셀러브리티들은 그녀가 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녀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모든 고객을 볼 때 매순간 초진고객을 대할때의 설렘이 있어요. 그 미세함이 손길로 고객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떨립니다. 하지만 오
직 피부에만 집중합니다.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좋아질 것이라든 주문을 걸면서 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바쁜 방송 스케줄로 인해 시간을 따로 내
어서 오는 그들을 자연인으로 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압구정점 직원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지역주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오시는 분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피부
휴식을 위해 방문하세요. 한두번 오시기 보다는 몇 년째 꾸준히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피부과전문으로서
박진성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미주알고주알 개인적인 이야기나 방송(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피부에 대한 고민만은 여과없
이 털어 놓는다고 한다.

차안박피부와 웹진 : 차안박스토리 > 편인터뷰

하지만 TV 속에서 보는 인물과 지금 관리받고 있는 분이 같은 분인지 생각들때도 많아 어색할 때도 있다고.

“마음은 그래도 다 통하는 것 같아요. TV속에서는 나의 스타지만 병원에서는 나의 소중한 고객이니깐요. 무엇보다 그분들도 우리를 패밀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앨범이 나오거나 기념품이 나올때면 저희 인원에게 맞춰 다 가지고 챙겨 가지고 오시고, 가끔 간식도 챙겨주세요! 그럴때면 감사함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차안박피부에 입사해 ‘에스테이션’이라는 직업에 더욱 긍지를 가지게 됐다는 온송이 에스테이션은 눈감고 있는 고객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자신의 ‘손’이 먼저 알아낸다고 한다. 앞서 에스테이션의 독백처럼 차안박피부의 에스테이션으로 현재에 만족하고 충실한 하루하루를 보내는게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한다. 너무 소박한 계획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보면 뜻하는 바를 이룰 것 같다”는 속마음을 내비쳤다. 고객에게 첫인사를 하는 손의 설레임을 기억하고 있는 온송이 에스테이션의 눈망울이 참 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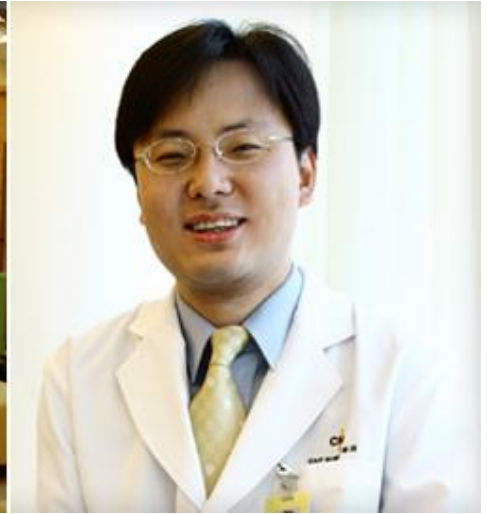
“ 차안박피부과 지점 중 압구정점은 치료외에 두가지로 유명하다. 한가지는 셀러브리티들의 방문이 제일 많은 곳이라는 것, 두번째는 셀러브리티들을 가장 일반고객처럼 응대하는 곳이라는 점에서다. 어찌보면 VIP로서 대접을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일 수 있으나 피부케어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압구정점을 찾는 고객은 모두 VIP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 ”

피부 유비무환 시대, 피부관리 바이블 대공개 차앤박피부와 평촌점

지점을 찾기 전 지점명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평촌!** 많이들 들어봤는데 막상 그곳이 안양시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무엇보다 안양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한 소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데 평촌하면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연장선상에서 이 지역의 브랜드 병원으로 입지를 굳힌 차앤박피부와 평촌점의 세련된 아우라가 느껴진다.



| 평촌점 인테리어 전경



| 평촌점 이상정 대표원장

피부전문가에게 피부고민을 상담하세요!

“개원하고 6년 됐는데요. 초반에는 주름, 탄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4~50대 고객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엔 20, 30대의 고객층이 두드러집니다. 여드름, 여드름흉터는 물론이고, 주름탄력에 대한 퍼스트에이징을 개선하고자 하는 니즈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20~30대의 경제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이상정 피부과전문의(대표원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피부과 문턱이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피부트러블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 꾸준히 기 본케어의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피부도 한순간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평촌점의 고객들은 지역주민이 대부분이라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방부제 외모를 위한 1원칙, 자외선차단

변치 않는 동안을 사랑하는 연예인을 보고 방부제 외모라고 한다. 사실 이것은 많은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자외선 차단이라고. 피부의 백해무익한 자외선 최근 색소질환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많은 고객들이 자외선차단에 대한 필요성은 언론을 통해서든 각종 정보를 통해서든 듣고 있기 때문에 학습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지요. 이를테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사람들의 80%이상이 적정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만 믿고 소량만 바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덧바르는 것도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색소를 발견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분하기가 간단치 않는데 색소의 매커니즘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치료라도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색소질환은 다른 치료와는 달리 인내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는 게 이상정 피부과전문의의 전언이다. 나아가 방부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한 1원칙인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하고 색소가 발생했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치료 받기를 권하고 있다.

피부관리의 바이블, 수면충분히, 핸드터치 No, 보습은 기본

트위터(@cnpskin12)로 SNS 소통을 하고 있는 이상정 피부과전문의에게 물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피부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노하우에 대해서다. 그의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은 상식이고, 얼굴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손의 세균수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보습은 모든 피부타입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드름 환자의 경우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건조할 경우 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여드름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킨케어는 하는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트러블로 인한 피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피부재생과정 또한 건조할때보다는 보습이 충분할 때 더욱 활성화 됩니다.” 이 세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피부관리의 기본은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평촌점의 피부과주치의로서의 명쾌한 피부관리 바이블 제시다.



이상정 피부과전문의는 연말연시를 맞아 6년이라는 시간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한 직원들에 대한 조금 이른 덕담 또한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5년 10년을 함께 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차안박피부과 패밀리로서 진심을 다하다 보면 고객도 직원간에도 통하게 될 것이라고. 고객을 향한 평촌점의 희망찬 미소는 진심의 힘에서 나온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평촌점의 신세경

설비게이션 설수현 메디컬코디네이터



최근 한 드라마에서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 궁녀(신세경)가 화제다. 평촌점에서도 일명 '설비게이션'으로 통하는 설수현 MC는 고객을 한번 응대하고 난뒤 재방문시 바로 기억해 내는 기억력으로 평촌점의 신세경이라 명명되고 있다. 에스테티션으로 시작해 간호조무사와 메디컬코디네이터 과정을 마치면서 본격적으로 MC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서비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타고난 성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수줍게 이야기 했다.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지만 그녀의 장점은 꼼꼼함이다. 많은 고객을 기억하는 그녀의 비결은 천재성보다는 '메모'다. 고객의 말투나 제스처 등을 간단하게 우선 메모하고, 주의깊이 살피면서 그녀의 머리 속에도 메모가 되는 것 같다고 한다. 어김없이 고객의 다음 방문때는 차트를 찾기전 고객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의료관광이나 MC의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1:1 멘토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강연보다는 멘토링에 더욱 눈길이 갑니다." 힘찬 포부를 밝힌 그녀의 미소가 야무지다.

피부 관리 모범생의 광채피부 거듭나기 차안박피부주치의 조언따라 하다보니 광채피부 됐어요!

이 체험기는 DRT진피재생술을 받고 내 피부가 환골탈태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 기대를 했다면 읽지 않아도 된다. 단, 아직 2회의 시술이 남아 있는 지금 시점, DRT진피재생술 치료에 대한 리얼하고 생생한 체험 후기를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여드름흉터가 사라지는 희망을 이야기 하고 있다. DRT진피재생술 이후의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다.

차안박피부와 양재본원에 가다

1년간 고민했다. ‘DRT 진피재생술’ 시술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봤다. 피부에 관심이 많은 주변 사람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다. “돈 들여서 뭘 그런 걸...”이라는 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해보라”는 말을 번갈아 들었다. 결정해야 했다. 그리고 올해 휴가 첫 날, 나는 ‘DRT 진피재생술’을 받기 위한 시술대 위에 누웠다.

학창시절 여드름성 피부 트러블로 고생했고 어느 철이 왔다면 여드름이 심하게 돌아왔다. 나는 여드름이 생길라치면 두고 보지 않고 즉시 손톱으로 짜서 제거했다. 그 자리에는 고스란히 흉터가 남았다. 여지없이 흉터가 난 자리에는 또다시 여드름이 돌아왔다. 그리고 찼다. 그 과정을 반복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턱 부위에 피부트러블이 자주 일어났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제거했다. 그러다 보니 얼굴 곳곳 여드름 자국은 분화구가 되었고 색소침착과 같은 문제도 동반됐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후엔 얼굴색이 칙칙해졌고 유분도 많아졌다. 업무 중에 안경이 스르르 내려갔다. 어느 순간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다. 언제 시간을 빼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검색과 지인의 의견을 종합해 최적의 개선방법을 찾아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종합해 차안박 피부과를 찾았다.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고 내게 맞는 시술을 추천받았다. 해법은 ‘DRT 진피재생술’이었다.

시술 당일

의사선생님은 시술과정과 시술 후 얼굴 반응, 대처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기억되는 그날, 설명 받은 내용을 나의 경험담과 오버랩하면 이렇다. 강력한 레이저가 피부에 침투하면 굉장히 따끔거리고 붉게 변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서서히 ‘참을 수 없을 정도, 그러나 꼭 참으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아픔이 몰려온다. 시술 받은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나아지지만 첫째 날은 편히 쉴 수가 없다. 잠을 자려고 하면 시술 받은 볼 부위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나는 듯했고 아팠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이후엔 ‘고생을 사서 하는 것, 더하기 돈까지 들어서 고생하는구나’라는 생각. 하루가 지났다. 따끔거리는 증상은 말끔히 사라졌다. 붉은색이었던 부위는 서서히 딱지로 변해갔다. 세수를 할 때 일부러 얼굴을 세게 문지르지 않았다. 손으로 심하게 자극을 준다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딱지를 인위적으로 떼어내는 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도 딱지가 얇은 상태 그대로 계속된다. 세수를 하면 굉장히 건조해졌다. 병원에서 받은 피부재생 연고와 수분크림 샘플을 바르자 진정되었지만 조금만 있어도 시술부위가 하얗게 변했다. 또다시 수분크림을 바르고 있자니 조바심이 났다. 언제 나아지려나.

시술 둘째날

시술 둘째 날엔 붉은색이었던 부위가 흑색에 가깝게 변해갔다. 딱지가 자리잡으며 생기는 반응. 이미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수를 하니 자연스레 딱지가 떼어지고 있었다. 연고를 바르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외출은 안 했다.

시술 셋째날

시술 셋째 날엔 3분의 2 가량의 딱지가 물에 닿으면서 자연스레 떼어졌다. 좋아하다가도 거울을 보면 부위별로 붉은 기운이 남아 있거나 그 주변엔 여전히 딱지가 붙어 있어 손으로 확 긁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꼭 참았다.

시술 넷째날

시술 넷째 날엔 딱지가 거의 사라지고 그 부위가 빛을 받아 놀란 것처럼, 혹은 찜질방에서 갓 나온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다. 반들반들해진 느낌도 든다. 아프진 않고 역시나 연고와 수분크림, 뒤이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첫 외출을 했다. 모자를 꼭 눌러썼다. 자외선을 철저히 봉쇄하려는 교육지책이었다. 다음날부터는 자연스럽게 외부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얼굴 상태가 된다. 얼굴을 감쌌던 ‘딱지’가 사라졌으니 당연하다. 붉은 기운은 남아 있고 피부결은 한결 나아진 듯한 느낌이다.



일주일 후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말한다. “어디 바닷가에서 심하게 놀다 왔나? 얼굴이 많이 탔다.” 시술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첫 반응에 나는 심히 놀랐다. 꼭 실내에만 있었고 피부가 괜찮아졌다는 반응을 기대했건만 바닷가에서 심하게 놀다왔나니. 거울을 보니 진짜 겁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얼버무렸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붉고 검은 기운이 걷혀지면서 한결 나아졌다. 주위 사람들도 예전보다 한층 피부결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해줬다. 그 말을 듣고서 거울을 한번 봤다. 아직 1회 시술이라 여드름 자국은 기대만큼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유분기는 줄어들었고 얼굴을 만졌을 때의 촉감도 매끈했다. 아직 1회다. 두 번의 시술이 남아있다. 한 달에 한번씩, 3회에서 5회 이상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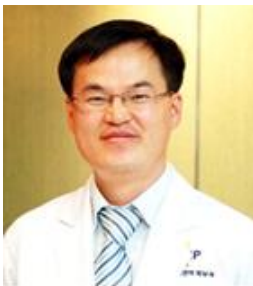
DRT 진피재생술, 1년간 고민한 끝에 1회 시술을 끝냈다. 사람마다 단번에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천천히 하면할수록 좋아지기도 한단다. 3회 시술을 모두 마쳤을 땐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피부가 되어 있을까. 레이저가 피부에 닿아 따끔거리는 반응은 한순간이다. DRT 진피재생술의 효과는 그 이후를 봐야 알 수 있다.

피부도 보호하면서 겨울시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천점 류영식 피부과전문의



Q

보드에 폭 빠져사는 보드족입니다. 이번에도 시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드를 타고 나서 피부 트러블 때문에 너무 고생한 일인으로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피부도 보호하면서 겨울시즌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류영식 피부과전문의

겨울스포츠를 즐기고 나서 의외의 상황으로 피부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피부트러블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자외선에 의한 손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겨울철 자외선은 여름에 비해 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눈 위에서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눈에 반사된 햇빛은 여름 해변가보다도 자외선이 4배(모래사장의 햇빛 반사율 5-20%, 눈이나 얼음판의 햇빛 반사율 85-90%)나 강하므로 스키장에서의 피부 관리는 여름휴양지에서보다 자외선 관리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겨울철 자외선은 여름처럼 화끈거리거나 수분이 생기는 등 즉각적인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지만, 장시간 노출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따라서 여름철과 마찬가지로 스키를 타기 30분 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발라주고 2-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키장 메이크업이 붐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또한 고산 지대에 위치한 스키장은 찬바람이 강해 피부가 쉽게 수분을 잃고 건조해져 트거나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스키를 타기 전과 후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겨울철의 자외선차단제 선택은 여름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SPF 15 정도의 제품이 적당하고 자외선 A까지 차단되는 제품(PA+, PA++, PA+++)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찬바람에 의해 피부가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민감성 피부에도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파바프리(PABA-free)'라고 표기되어 있는 자외선 차단제나 화학적 차단제가 아닌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스키, 보드 등 겨울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SPF30, PA++ 정도의 비교적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제품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키장에서는 땀과 눈에 의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많이 씻겨나가므로 1시간에 1회 정도씩 덧발라 주고, 워터프루프 기능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흔히 않게 동상이나 일광화상으로 피부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증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기 쉽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피부과에 와서 치료를 받을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진정케어나 비타민C치료로 건 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앤박피부와 하반기 관리자 워크숍 2011 차앤박피부와 조직문화 강화 프로젝트 현장 속으로

66 교육은 백년지계다.

“차앤박피부가 전국적인 네트워크 피부과로 명성을 이어가는데는 단연 '교육의 힘'이 크다. 지난 10월 하반기 차앤박피부와 관리자 워크숍 교육이 진행됐다. 연례행사로 이번에는 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일순위로 뽑고 있는 '조직문화'를 강화해 치열한 의료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위대한 GREAT 서비스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된 이번 강의는 변화하는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혁신을 위한 자구책이 제시됐다. 또한 고객 중심의 사고와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진기남 교수님의 명강의가 이어졌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 부터

차안박 네트워크 22개 지점 약 70명의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기존에는 관리자 위주였다면 이번 워크샵에서는 피부과전문 의가 함께 강의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어느때보다도 의미 깊었다.

2011 차안박피부과조직문화강화 프로젝트!!

더욱 단단해진 차안박피부과네트워크의 조직문화만들기를 응원한다. 99

talk

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강의 후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트렌드 파악 및 여러 사례를 통한 혁신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 관리자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지속적으로 내부 병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사고 방식으로 병원에 접목할 수 있을지 숙제를 안고 갑니다.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4시까지 자리했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낍니다. 들었던 내용과 제가 그동안 고객에게 대했던 자세를 비교하며 잘 들었고, 느끼는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병원의 서비스발전과 열린사고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